

# 구급대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간의 관계에서 조직내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 상사 및 동료관계를 중심으로

## The 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Support between Job Stress and Burnout of 119 Ambulance Workers

송유신<sup>1)</sup>, 전해성<sup>2)</sup>

Song You Shin<sup>1</sup> , Jeon, Hye Seong<sup>2</sup>

### 요약

본 연구는 119구급대원의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조직내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이에 119구급대원의 직무스트레스를 독립변인으로, 소진을 종속변인으로, 조직내 상사 및 동료 간의 정서적 지지를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4개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여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351부가 배포되었는데, 이 중 불성실한 응답지를 제외한 333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119구급대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간의 관계에서 동료의 정서적 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사의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핵심어:** 119구급대원, 직무스트레스, 소진, 정서적 지지, 동료, 상사

### Abstract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to identify the relation between job stress and burnout of 119 ambulance workers and 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support. Especially, the research was designed focusing on the emotional support of superior and colleague in workplace. The researchers used a convenience sample of 333 targeting 119 ambulance workers belonged to 4 fire stations (Yong-in, Bun-dang, Seong-nam and Gwang-ju) in Gyeonggi-do. The researchers employed frequency analysis, t-tests, one-way ANOVA, Pears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1) Graduate School of Legal Studies and Public Administration, Dankook University 152, Jukjeon-ro, Suji-gu, Yongin-si, Gyeonggi-do, Korea e-mail: sus0129@gg.go.kr (First author)

2) Graduate School of Legal Studies and Public Administration, Dankook University 152, Jukjeon-ro, Suji-gu, Yongin-si, Gyeonggi-do, Korea e-mail: hsjeon@dankook.ac.kr (Corresponding author)

Received(May 04. 2018), Review (May 25. 2018), Accepted(June 30. 2018)

analysis. As a result, job stress of 119 ambulance worker had a considerable influence on burnout, and colleague's emotional support had moderating effects on this influence. Superior support could not be verified as a moderating factor. In conclusion, colleague's emotional support function as a buffer for the negative impact of job stress of 119 ambulance worker on burnout.

**Keyword:** 119 Ambulance Worker, Job Stress, Burnout, Emotional Support, Colleague, Superior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소방공무원의 업무 중 특히 119구급업무는 각종 사건·사고의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환자의 생명을 구해내고 그에 적절한 응급처치를 수행하며 긴급하고 안전하게 병원까지 이송하는 중요한 업무로써,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119구급대원은 일반인들은 생각하기 어려운 신체훼손과 변형을 동반한 중환자를 응급 처치해야 하는 등 복합적인 직무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1].

직무스트레스란 스트레스의 일종으로 한 개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스트레스로써 직무스트레스는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원, 바램(요구)과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에게 유해한 신체적 또는 정서적 반응을 초래하는 업무적 요인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2]. 119구급대원의 직무스트레스는 구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체력, 경험이나 구급 직무환경에서 필요한 구급대원의 능력이나 자원을 개개인이 효과적으로 공급하지 못해서 직무요구와 불균형을 이룰 때 발생하는 유해한 심리적, 생리적, 행동적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3].

선행연구들에서는 직무스트레스가 개인 및 조직차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수준임을 제시하고 있다[4]. 먼저 개인차원에서는 우울증, 수면장애등 정신건강문제, 위장장애와 두통 등 정신·신체질환, 대인관계의 장애 및 그로인한 정신질환의 재발률 증가 등이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되어 발생된다[5], 특히 이러한 직무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 중 가장 빈번하고 심각한 증상이 소진이다. 소진에 대한 징후는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개인적 성취감의 저하라는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될 수 있고,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간의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6].

이에 업무특성상 직무스트레스 자체를 낮출 수 없다면, 119구급대원의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 간의 관계에서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수적인 노력이다. 소진 예방을 통한 119구급대원의 신체적, 심리적 안정은 개인적 정신건강차원에서는 물론

119조직의 목표달성과 대민응급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최근 들어 직무스트레스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가 발생하더라도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주요 자원으로 사회적 지지 중 정서적 지지를 제시하고 있다. 정서적 지지는 스트레스와 소진을 조절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제로 알려져 있는데, 많은 기존연구들은 대부분의 경우 사회적 지지체제체가 직무스트레스에 발생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들을 완충시킨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7,8,9]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119구급대원의 지속적이고 과도한 직무스트레스로부터 발생되는 소진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대인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직장내 주요관계에서 정서적 지지를 주요 기제로 고려할 수 있고, 대상과 동료 및 상사 등의 직무관련 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 간의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다룬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119구급대원의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 1.2 연구문제

본 연구는 119구급대원의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 간의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의 하위요인(상사, 동료)에 따른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첫째, 119구급대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간의 관계에서 상사의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있는가?

둘째, 119구급대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간의 관계에서 동료의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있는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6년 3월 동안, 경기도 4개(용인, 분당, 성남, 광주)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여 119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근무하는 부서마다 일근, 2교대, 3조 2교대 등

로 근무형태가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서 같은 부서를 평균 2~3번 방문하였다. 설문지에서는 연구목적에 대한 설명, 익명성 보장 및 설문과 관련한 비밀보장에 대한 설명,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 등을 포함했다. 설문지는 351부가 배포되었으며,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는 351명이였다.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18부(5%)를 제외하고 총 333부가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데이터로 사용되었다.

## 2.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연구 도구는 구조화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이용하였고, 질문지의 구성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1문항, 직무스트레스 15문항, 소진 15문항, 정서적지지 12문항으로 총 5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2.2.1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는 [10]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역할갈등, 역할모호, 역할과다, 물리적 환경의 4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문항 수는 총 15문항으로 역할갈등 4문항(1 ~ 4), 역할모호성 4문항(5 ~ 8), 역할과다 4문항(9, 10, 11, 13), 물리적 요구 3문항(12, 14, 15)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아니다(1점), 아니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까지 평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역채점 문항(5, 6)을 제외하고는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의 값은 .92으로 나타났다.

### 2.2.2 소진

본 연구에서는 직무소진 척도(Maslach Burnout Inventory-General Survey: MBI-GS)를 번안하고 타당화 작업을 거친 한국판 일반직 종사자를 위한 직무소진 척도는 [11]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정서고갈, 비인격화, 자아성취감 감소의 3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문항 수는 총 15문항으로 정서고갈 5문항(1 ~ 5), 비인격화 4문항(6 ~ 9), 자아성취감 감소 6문항(10 ~ 15)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약간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많이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까지 평정하도록 되어있으며, 개인성취감 감소 문항

(10 ~ 15)을 제외하고는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의 값은 .89로 나타났다.

### 2.2.3 정서적 지지

본 연구에서는 [12]가 수정-제작한 사회적 지지 문항 중 대인관계와 가장 깊은 관련을 가지는 정서적 지지만을 선택하여 정서적 지지 척도로 사용하였고, 지지의 원천을 상사 및 동료로 구분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아니다(1점), 약간 아니다(2점), 약간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까지 평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윤혜정(1993)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alpha$ 의 값은 .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의 값은 .95로 나타났다.

## 2.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통계분석을 위해 SPSS 18.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은 빈도분석과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각 변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셋째,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통해 변인들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소진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t-test,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119구급대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간의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연구대상자 특성

본 연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빈도분석과 백분율을 분석한 결과 남자는 87.70%(292

명), 여자는 12.30%(41명) 연령은 20대 11.40%(38명), 30대 49.80%(166), 40대 30.60%(102), 50대 8.10%(27명)로 30대와 40대가 많았고, 학력은 대졸 81.10%(270명), 고졸이하 16.50%(55명), 대학원졸업 2.40%(8명) 순으로 많았다.

[표 1] 사회 인구의 통계적 특성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333)

variable	item	frequency	%
sex	male	292	87.70
	female	41	12.30
age	20's	38	11.40
	30's	166	49.80
	40's	102	30.60
	50's	27	8.10
education	high school	55	16.50
	college	270	81.10
	graduate school	8	2.40

### 3.2 119구급대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간의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

119구급대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에서 상사 및 동료의 정서적지지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3.2.1 119구급대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간의 관계에서 상사의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상사의 정서적지지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변수, 조절변수, 상호작용항(독립변수 x 조절변수)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모형의 설명력은 47%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2] 119구급대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간의 관계에서 상사의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

[Table 2] The moderating effect of superior's emotional support between job stress and burnout of 119 ambulance workers (n=333)

step	variable	B	SE	$\beta$	t	R2	$\Delta R2$	$\Delta F$
1	Job Stress	.55	.04	.65	15.43***	.42	.42	238.20***
2	Job Stress	.47	.04	.56	12.58***	.46	.04	23.04***
	Superior's support	-.19	.04	-.21	-4.80***			
3	Job Stress	.47	.04	.55	12.45***	.47	.01	3.07
	Superior's support	-.19	.04	-.21	-4.83***			
	JobStressX Superior's support	.08	.04	.07	1.75			

\*\*\*p<.001

### 3.2.1 119구급대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간의 관계에서 동료의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

다음에서는 직무스트레스와 소진과의 관계에서 동료의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1단계에서 직무스트레스를 예측변인으로 투입한 결과는 앞서와 동일하였고(B=.55,  $\beta$ =.65, p<.001), 2단계에서 조절변수인 동료의 정서적 지지를 투입한 결과 또한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19,  $\beta$ =-.21, p<.001), 회귀모형의 R2값은 .45로 직무스트레스와 동료의 정서적 지지는 소진을 45%설명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직무스트레스와 상사의 정서적 지지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상호작용 항은 종속변수인 소진에 유의하게 나타났(B=.12,  $\beta$ =.10,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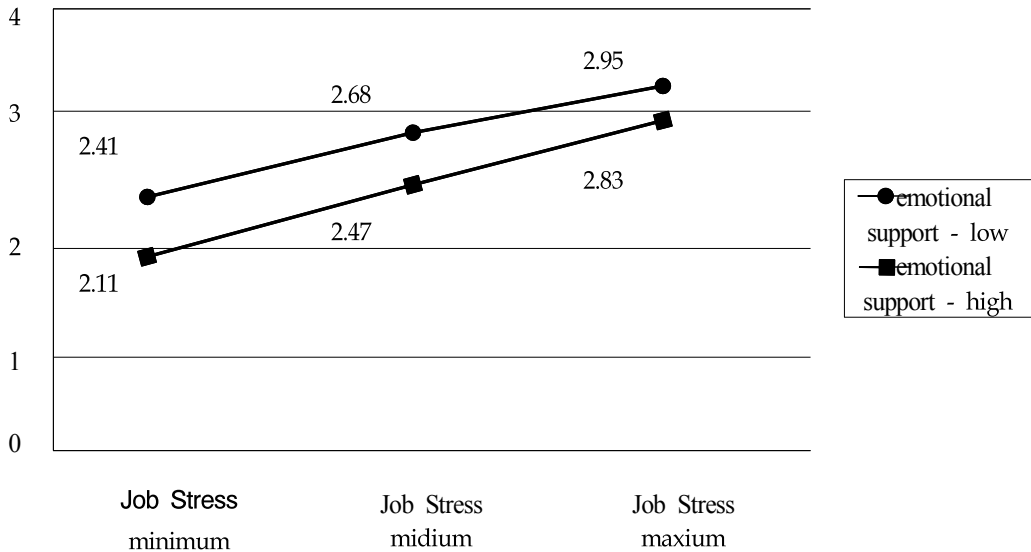
[표 2] 119구급대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간의 관계에서 상사의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  
 [Table 2] The moderating effect of colleague's emotional support between job stress and burnout of 119 ambulance workers

(n=333)

step	variable	B	SE	$\beta$	t	R2	$\Delta R2$	$\Delta F$
1	Job Stress	.55	.04	.65	15.43***	.42	.42	238.20***
2	Job Stress	.48	.04	.57	12.69***	.45	.03	16.65***
	Colleague's support	-.19	.05	-.18	-4.08***			
3	Job Stress	.48	.04	.56	12.58***	.46	.01	5.97*
	Colleague's support	-.20	.05	-.19	-4.24***			
	Job Stress X Colleague's support	.12	.05	.10	2.44*			

\*p<.05, \*\*\*p<.001

소진에 대한 직무스트레스와 동료의 정서적 지지가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도식화하여 [picture 1]에 제시하였다. 그래프는 앞서의 다른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즉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할 때 소진 또한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직무스트레스가 높을 때보다 직무스트레스가 낮은 상황에서 동료의 정서적 지지의 수준이 소진의 변화에 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동료의 정서적지지 조절효과에 대한 그래프

[Fig. 1] Graph of the moderating effect of colleague's emotional support

####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119구급대원들이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 간의 관계에서 조직내 직장 상사 및 동료의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하위요인별로 파악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에서 조직내 동료의 정서적 지지는 119구급대원의 직무스트레스를 완충하여 소진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정서적 지지의 완충효과 가설을 입증한 기존연구들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첫째, 119구급대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간의 관계에서 동료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동료지지는 가족과 친구 다음으로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료의 정서적 지지가 스트레스 경험과 개인의 심리적, 행동적 반응 사이에 개입하여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를 완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기존연구들을 지지하는 것이다.

둘째, 119구급대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간의 관계에서 상사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상사지지는 직무스트레스와의 상호작용에서 소진에 대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직무 관련 스트레스는 업무영역 내 사회적 지지가 가장 영향을 미친다는 [13]Larocco, House와 French(1980)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사회적 지지원 중 특히 상사는 직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에 대한 완충역할을 하며, 잠재적인 스트레스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에게 상사의 지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14]Beehr(1985)의 연구결과와도 상반된 결과이다. 이와 같은 본 연구와 기존연구의 결과적 차이점은 119구급대원의 직장문화의 특수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근거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119구급대원은 대부분 하위직급에 속해있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급적 지휘체계로 이루어진 특수한 직장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조직문화에서 평가적 위치에 있는 상사와 마음의 문제를 나누고 더욱이 상사의 지지를 얻는 것은 어느 개인에게는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편의표집으로 인한 일반화의 한계를 갖는다. 즉, 본 연구는 경기도 4개(용인, 분당, 성남, 광주) 소방서를 중심으로 조사를 수행하여, 본 연구결과를 모든 119소방대원에게 적용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긴장되고 치열한 업무환경에서 119구급 대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감소를 위해 이러한 부정적 정서적 요인을 완화시키는 직장내 정서적 자원에 대해 주목하고, 동료 간의 정서적 지지가 중요함을 확인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높이기 위해 좀더 과학적 접근 기반의 확률적인 표집을 할 것을 제안하며, 또한 직장내 정서적 지지 뿐만 아니라 가족 및 친구의 정서적 지지와 같은 좀 더 폭넓은 비공식적인 정서적 지지체계에 대한 자원모색이 요구된다.

## References

- [1] Hong H, J., Sung, M. H.. “Factors Affecting Burnout of Staff in Emergency Medical Service(Focusing on 119 rescuers in Busan and Gyeongnam)”, *Korea J of Occup Health Nrs*, 21(2), (2012):164-173
- [2] Yoon, S, H., effects of organizational managerial characteristics and job characteristics on job stress and job effectiveness. *Th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7(3), (2004):451-466
- [3] Cheon, S. S., “A Study of relation social support of Job stress and Organizational of effectiveness”. Hoseo University, (2009)
- [4] Noor, N. M. & Zainuddin, M., “Emotional labor and burnout among female teachers: Work-family conflict as mediator”.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1), (2011):283-293
- [5] Davis, R. S. & Stazyk, E. C.. “Developing and Testing a New Goal Taxonomy: Accounting for the Complexity of Ambiguity and Political Support”,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25(3), (2014):751-775
- [6] Maslach, C., Schaufeli, W. & Leiter, M. P., “Job burnout”, *Annual Reviews of Psychologist*, 35, (2001):397-422
- [7] Sand, G., Miyazaki, A. D., “The Impact of Social Support on Salesperson Burnout and Burnout Components”, *Psychology & marketing*, 17(1), (2000):13-26
- [8] Greenglass, E. R.; Burke, R. J., “Hospital Restructuring And Burnout”, *Journal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 25(1-2), (2002):89-114
- [9] Arora, N. K.; Finney Rutten, L. J.; Gustafson, D., “Perceived helpfulness and impact of social support provided by family, friends, and health care providers to women newly diagnosed with breast cancer”, *Psychooncology*, 16(5), (2007):474-486
- [10] Choi, S. Y.. “A Study of organizational involvement and job satisfaction at job stress”, Hanyang UnIversity, (2008)
- [11] Shin, K. H., “The Maslach Bunout Inventory-General Survey (MBI-GS): An Application In South Korea”, *Th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6(3), (2003):1-17
- [12] Yoon, H, K. “perception of everyday stress and social network support in adolescence”, Seoul Univeristy, (1993)
- [13] LaRocco, J. M., House, J. S. & French, Jr., J. R. P. “Social support, occupational stress, and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 (1980):202-218

- [14] Beehr, T. A., "The role of social support in coping with organizational stress", In. T. A. Beehr & R. S. Bhagat(Eds.), *Human stress and cognition in organizations: An inte-grated perspective*, New York: Wiley, (1985):375-398
- [1] S. U. Pack, H. C. Choi, "Visual Communication Design", Mejinsa Publishers, Seoul, (1992):92
- [2] J. W. Kim, "A Study on Idea Conception for Modern Illustration Teaching", *Korea Society of Design Trend*, vol.21, (2008):121
- [3] J. W. Back, "Visual Expression Technique of Computer Graphics", Master's degree graduate thesis of Sookmyung Womans University, (1992):11
- [4] Yasuyuki Higuchi, "Photoshop brush & Style book, Young Jin Publishers", Seoul, (2010):18
- [5] <https://ko.wikipedia.org/wiki/O%EB%A6%B4%EC%A0%9C> , Retrieved: February 25 (2017)
- [6] H. J. Cho, J. I. Choi, "A Study on Advertising Photographs based on the Depaysement", *AURA*, vol.36, (2016):85
- [7] S. T. Lim, "Illusion and Future of Surrealistic Photography in Digital Era", *Communication Design Association of Korea*, vol.35, (2011):116
- [8] [9] <http://www.erikjohanssonphoto.com/>, Retrieved: February 10 (2017)
- [10] <http://weekly.hankooki.com/lpage/coverstory/200811/wk20081112140617105470.htm/>, Retrieved: February 27 (2017)
- [11] <http://maggietaylor.com/>, Retrieved: February 15 (2017)
- [12] <http://www.behance.net/martingrohs/>, Retrieved: February 17 (2017)
- [13]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slee402&logNo=220236607497/>, Retrieved: February 25 (2017)
- [14] <http://www.martindepasquale.com/filter/collections/>, Retrieved: February 22 (2017)
- [15] K. S. Jang, *Donsia Photoshop CC*, Sidein Publishers, Seoul, (2016):492